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

"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,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"

자료문의 : 광물자원팀 전응길 과장, 장영덕 사무관(02-2110-3954),

"전국광산 정기·불시 점검 등 안전관리 철저 지시"

– 지식경제부 금년도 광산개발 무재해실현을 위한 광산보안관계자 회의개최

○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3일 발생한 강원도 태백시 소재 장성광업소의 갱내가스사고를 계기로 광산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,

'12.3.12일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국장(김준동)주재로 전국 4개 광산 보안사무소장과 한국광물자원공사, 한국지질자원연구원, 대학교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광산안전관리강화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음

□ 광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기·불시 안전점검 추진

○ 최근 광산사고 발생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, 가스, 출수, 낙반붕락, 화약사고는 대형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재해로서

*** 최근광산재해로 인한 사망자수 : '09년 10명, '10년 7명, '11년 5명**

금번발생한 장성광업소 갱내가스사고 조사가 진행되면서 광산 근로자가 담배를 휴대하고 입갱한 사실이 들어남에 따라 강력한 안전관리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「광산개발 무재해 실현을 위한 광산안전관리강화 대책」을 수립 발표함

○ 지식경제부는 향후 광산안전관리 점검을 정기점검에 의존 하지 않고 불시점검을 강화하여 광산재해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한편,

광산무재해 실현을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, 한국지질자원연구원, 대학교,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

○ 해빙기가 시작되는 이달 19일부터 28일까지 대형재해 발생우려가 있는 전국 5개 탄광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관리 세부지침을 수립 시행하기로 하였다

○ 금번 대책회의를 주재한 김준동국장은 광산보안사무소장들에게 금년 2월초 2명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추가재해를 여하히 사전에 예방토록 강조하고 만약 추가 재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광산보안사무소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광산사고방지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.